

방탄소년단 노래, NASA 달 탐사선서 듣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우주선에서 울려 퍼진다.

나사 존슨우주센터는 4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2024년 달 탐사 때 우주비행사들이 방탄소년단 노래 '문차일드', '소우주', '134340' 을 듣는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과 RM 팬들이 정말 많다. 노래를 추천해줘서 고맙다." 고 전했다.

전날 나사는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올해로 50주년 된 것을 기념해 2024년까지 달 탐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비행사들이 들을 노래를 추천해달라며 오는 28일까지 신청받겠다고 안내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방탄소년단 팬들은 우주와 관련된 멤버들의 노래를 대거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문차일드' 는 리더 RM이 지난해 10월 발매한 솔로 앨범 '모노.' (mono.) 수록곡이다. 'We're bom in the moonlight ain't no fantasy' 라는 가사가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우주' 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



르소나' (Map of the Soul: Persona) 수록곡이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 웹블리 콘서트 피날레를 장식했다. '134340' 은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발매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의 수록곡이다. '134340' 은 한때 명왕성으로 불렸지만 국제천문연맹(IAU)이 2006년 8월 행성 분류법을 바꾸면서 태양계 행성 지위를 잃고 왜소행성이 됐고, 소행성 목록에 옮겨져 '134340' 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다.

제이지, 힙합 뮤지션 최초 '10억달러 부자'



래퍼이자 팝스타 비욘세의 남편으로 유명한 제이지(49·사진)가 힙합 뮤지션으로는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부자에 등극했다.

경제지 포브스는 3일 브루클린의 악명높은 슬럼가에서 자란

제이지가 "최소 10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해, 힙합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 중 하나가 됐다." 고 전했다.

제이지는 음악 활동 외에도 고급 주류 사업과 자체 엔터테인먼트사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도 뛰어들어 큰 수익을 냈다.

제이지의 히트곡을 제작한 음악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는 "제이지는 우리 문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왔다." 면서 "이제 그가 억만장자가 됐으니, 앞으로 무엇이 될지를 상상해보라." 고 말했다.

제이지에 앞서 미국의 또 다른 힙합 거물 닥터 드레가 지난 2014년 1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작년 포브스 집계를 보면 닥터 드레의 순 자산은 7억7천만 달러였다.

NCT 127 새 미니앨범, 미국 '빌보드 200' 11위

그룹 NCT 127(사진)의 새 미니앨범 'NCT #127 위 아 슈퍼휴먼' (NCT #127 WE ARE SUPER-HUMA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1위에 올랐다.



4일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NCT 127 '위 아 슈퍼휴먼' 은 '빌보드 200' 에서 11위, '월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NCT 127의 '빌보드 200' 11위 진입에 대해 "K-팝 가수 중에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최고 기록이다" "NCT 127이 'WE ARE SUPERHUMAN' 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며 NCT 127이 거둔 성과를 조명했다.

호세,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밴쿠버 등 11개 도시에서 12회 공연을 펼쳤다. 북미 11개 도시 공연은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 사상 최다 도시 개최 기록이다.

NCT 127은 지난해 10월엔 정규 1집 'NCT #127 레귤러-이레귤러' (NCT #127 Regular-Irregular) 로 '빌보드 200' 차트 86위에 올랐다.

한편 NCT 127은 4일 발표된 빌보드 내 '아티스트 100' 에서 6위에 올랐다. 자체 최고 순위이자 그룹 '방탄소년단' (BTS)에 이어 한국 가수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NCT 127은 지난 4월 북미 투어에 돌입, 뉴저지, 애틀랜타, 마이애미, 댈러스, 피닉스, 휴스턴, 시카고, 산

1267호 숫자퍼즐 정답								
9	3	2	1	4	6	8	5	7
1	4	5	2	8	7	9	6	3
6	8	7	3	5	9	1	2	4
2	5	9	6	7	4	3	8	1
4	6	3	8	1	5	2	7	9
7	1	8	9	2	3	5	4	6
3	2	1	4	6	8	7	9	5
8	7	6	5	9	1	4	3	2
5	9	4	7	3	2	6	1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해외(海外)에서 온 배우자 인연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30대의 처자와 배우자 인연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그 처자에게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에는 엄연히 배우자가 있기는 한데 현재의 운(運)의 흐름에서 배우자 인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해외(海外)에서 온 사람이거나 섬에서 태어난 남자와 인연을 맺어야 원만한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처자가 묻는 말이 "해외(海外)에서 온 인연이라면 한국에서 온 사람인가요?"라고 묻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답변해 준 말은 "해외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 굳이 한국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와이나 제주도처럼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본인이 지나가고 있는 운(運)의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배우자의 덕을 가로막는 운(運)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년 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2년 후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처자가 2년 후에 필자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전에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설마 해외(海外)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 친구 소개로 타이완에서 태어났다는 남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라면 그래도 섬이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과 궁합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두 사람의 궁합을 보니 완전히 잘 맞는 궁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합격선은 넘은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해준 말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잘 맞는 궁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선은 넘었으니 다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운의 흐름에 따른 인연도 오고가는 법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론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예약필수</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714.534.4645</div>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